

발등의 불 4대강 사업 수수방관 안 돼



김포불교환경연대 대표 지관 스님, 4대강 사업저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상임대표 조해봉 신부, 기독교환경연대 대표 김선구 목사 등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4대 종단 대표들과 4대강 대학생 당사단, 신도, 환경단체 회원 등은 7월 26일 남한강 이포보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활동가들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4대강 대학생 당사단

대학생 4대강 당사단

대학생 당사단 학생들이 4대강 공사 현장이 보이는 이호대교를 도보로 건너고 있다.



한 집행'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생들은 의지를 다지고 있었다. 자신들이 4대강 공사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해야겠다며 활동가에게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묻고, 생각하고, 토론하기를 반복했다. 학생들은 사전 교육을 바탕으로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현장 활동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실체를 알아가면서 자신들의 무

늘어갔다. 이렇게 '4대강과 생태, 자연'이라는 하나의 공통주제를 가지고 젊은 지성인은 환경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갔다.

정예송(연세대 05학번) 학생은 방향을 맞아 홀로 4대강을 답사하던 중 합류했다. 정예송 학생은 "지금이라도 반대표를 내지 않으면 '기권'이라고 생각한다. 기권은 결국 '무관심'이라는 생각이 들어 공사현장을 돌고 직접 찍은 사진으로 실상을 알리게 됐다. 나의 이 작은 행동에 여러 사람의 뜻이 더해지면 정부에서도 긴장할 것"이라고 밝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됐다. 도로에는 피서를 떠나는 차들이 멈춰 섰다를 반복했다. '더디어도 좋다'는 듯 여유만만한 이들은 뜨거운 여름을 즐기고 있었다. 무심히 달리는 차들을 뒤로하고 푸른색 티셔츠를 맞춰 입은 30여 대학생들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여주 이호대교에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곳은 무참히 파헤쳐진 4대강 공사현장.

학생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학생들은 준설토가 하나의 거대한 산맥이 된 것을 보고 "저게 다 강바닥에서 파낸 거예요?"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예전 모습과 비교한 학생은 "정말로 이랬나요?"라며 혀를 내둘렀다.

한국대학생문화연대 주최로 꾸러진 대학생 4대강 당사단은 7월 24일부터 안동 하회마을, 예천 구담보, 낙동강 내성천·구미보·상주보를 둘러보고 26일 남한강 이포보를 찾았다. 이포보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활동가들을 지지하기 위해서였다. 이날은 정부의 4대강 사업 반대와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4대 종단 공동기도회 및 기자회견도 함께 진행됐다. 학생들은 '4대강 사업 삽질 멈추는 그날까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4대 종단 성직자 주변을 돌았다.

기자 회견에는 김포불교환경연대 대표 지관 스님(서울함강선원장), 4대강 사업저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상임대표 조해봉 신부, 기독교환경연대 대표 김선구 목사 등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4대 종단 대표들과 신도, 환경단체 회원 등 6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성직자들은 "환경활동가들의 뜻과 행동을 지지한다. 환경활동가들을 강제 진압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벌집 흉수기인 지금도 4대강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되는 사업은 6·2지방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자 하는 환경 활동가들의 뜻과 제안을 받아들여 4대강 사업을 중단할 것"과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지역 주민들의 폭력 자제와 민주적 해결 자세, 경찰 공권력의 공정

관심에 대해서 반성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순수한 마음으로 출발한 답사는 알일이 영글어갔다.

한국대학생문화연대에서 활동 중인 임슬기(이화여대 06학번) 학생은 이번 답사의 단장을 맡았다.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 소식을 접하고 큰 충격에 휩싸였던 임슬기 학생은 "너무 늦었다. 대학생들이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임슬기 학생을 중심으로 학생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발적으로 답사를 준비하고 진행했다. 한국대학생문화연대 학생들은 교수님, 정치인을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후원을 요청했고,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했다. 임슬기 학생은 "단편적으로 4대강 공사를 반대하는 것을 넘어 지속적인 환경운동으로 '생태' '환경'을 탐구하고 대안을 실현하는 전국적 규모의 대학생 생태환경 동아리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4대강 당사단에는 고려대 등국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등 25명의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했다. 그 외에도 혼자서 주요 4대강 공사 현장을 답사하던 학생, 4대강을 주제로 다뤄주고 있는 영화인, 학교 교지에 실을 4대강 관련 기사를 취재하던 학생들, 남한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합류했다. 서울에서 20여 명으로 출발한 당사단은 40여 명으로 인원이 점점

했다. 정예송 학생은 "4대강 사업은 수수방관할 수 없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각자 주변 친구 10명에게 만이라도 현실을 알린다면 우리가 버리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학생회 회원이라는 정현우(고려대 07학번) 학생은 "불교의 생명관이나 경제적인 측면 모두를 봐도 이 사업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정현우는 "주변 친구들은 여전히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있다"며 "친구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알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습지와 공사현장을 돌아보고 학생들은 곧 공사로 지금의 모습이 사라질 강에서 물놀이를 했다. 물에 발을 담고 있던 학생에게 물고기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애들이 우리한테 4대강 공사 막아달라고 오는 게 아닐까?"

한 학생의 말에 애잔한 감동이 모두에게 전해졌다. 흙길은 밟으며, 물에 몸을 담으며, 하늘을 벗삼아, 풀벌레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내는 3박4일 동안 학생들은 자연의 소리를 들었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종단 공동기도회에 동참 '4대강 반대' 한 목소리 4대강 넘어 전국 대학생 생태환경 동아리 구상 중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주장하며 환경운동가들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이 7월 22일부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단양쑥부쟁이 대체식지를 찾은 학생들, 정나라 활동가는 대체식지에서 개체수의 급감, 대체식지의 무효용성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단양쑥부쟁이를 설명하는 표지판에는 2년생 쑥부쟁이를 1년생이라고 쓰거나, 단양을 '담양'이라고 잘못 표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梵鐘名家 聖鐘社

범종을 진정한 예술로 승화시킨 21세기 최고의 걸작품 탄생

세계 최고의 성종사 주조기술에 개채(改彩) 분야 최고의 권위자인 청원스님의 기술이 더해져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스타일의 명품 범종이 탄생되었습니다. 본 제품은 개채 및 개금을 통해 범종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킴과 동시에 개채와 같은 표면처리로 인해 종소리가 둔탁해지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신제품으로, 한국 범종의 수준을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킨 금세기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www.sungjonga.co.kr

이 사람아!

나는 흥을 위해서 한쪽 눈을 바쳤어 혼을 담아야 천 년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잔재주 부리면 끝이야!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아름다운 개채 범종

금고 (금박+은박)

범종 (못칠+개금)

해인사종 (금박+은박)

해인사종 (금박+은박)

대표: 범산 원광식 (중요무형문화재·대천민국 명장)

● 전사관: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43 Tel:02-733-6141 ● 공장: 충북 진천군 덕사면 합곡리 406-28 Tel:043-536-2581